중소건설업계 아우성

4대강 사업 '대기업 잔치'에 지역업계 분할 발주 확대 등 촉구

지역 중소건설업계가 아우성이다. 지방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형공사는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는데다, 재정 조기 집행으로 하반기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태라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최근 전남도에서 회동을 갖고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타개책을 모색했다.

건설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일반사업의 분할 발주 원천 봉쇄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확대로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 기회가 줄어들면서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분할 발주 금지의 경우 지난 1월 대통령이 공사 분할 발주 확대를 지시한 것과는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일반 공사에 기대를 걸었던 지역 건설업계의 실망감이 크다.

'4대강 살리기' 주요 사업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 수도권 대형 건설사 위주로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일반공사의 분할 발주는 이같은 대형 건설업 몰아주기를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또 지난 3월 지역 업체만 입찰·수주가 가능한 '지역제한 대상공사'범위를 기존 7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전남도내 900여개 회원사 가운데 대형건설사 50여곳 정도만 수주에 유리한 정책인 만큼 대부분인 소규모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도 죽을 맛이다. 지역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에 참여하는 지역 전문건설업 비율이 11.9%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남도회 소속 회원사의 83%에 이르고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라며 "대형공사 발주시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참여 폭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각종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민간 건설 경기 침체와 공공 공사 지역업체 참여 축소 등으로 지역 중소 건설업계는 여전히 힘들다"면서 "정부가 실질적인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이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판토마임 보고 피부관리 하고 더페이스샵이 20일 광주 충장로 매장에서 개최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식 후원 기념 '판토마임 보고 마스크 시트도 받고' 행사에서 판토마임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4대강 살리기 보상 시작

영산강 경작지 등 오늘부터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상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편입되는 경작지에 대한 영농손실과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의 이설 보상에 착수한다. 올해 집행될 보상비는 총 5천800억원으로 충남 부여지역 1천164억원을 비롯해 1천800억원이 우선 집행되고, 이달 28일 이후 4천억원의 보상금이 차례로 풀릴 예정이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들어가는 각종 보상비는 764억8천만원 규모로, ▲하천부지 내 경작지 2천372필지(면적 327만㎡) ▲비닐하우스 193개동(면적 204만㎡) ▲하천구역 내 사유지 2천530필지(면적 324만㎡) ▲추가 편입될 사유지 603필지(면적 120만㎡)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번 보상의 경우 4대강 살리기 1차 사업 구간의 하천부지 경작지와 비닐하우스가 대상으로, 이달 말 보상을 위한 실시설계 및 사업구역이 확정되면 기본조사·공고 등을 거쳐 보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사업구역에 신규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경우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재일교포 투자가, 광주기업에 1억달러 투자

재일교포 투자가인 가네다 세이힝 회장이 광주지역 기업인 ㈜아인소프트에 1억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가네다 회장은 지난 18일 광주시청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장일태 아인소프트 사장과 함께 투자 양해각서 조인식을 가졌다.

가네다 회장은 게임 기획과 개발, 유통에 투자하는 '게임 퍼블리싱'에 참여해 7년간 1억달러를 투자한다.

가네다 회장은 1938년생으로 19세때인 1957년 일본으로 건너가 여성복 제조업체에 근무하다 1960년대말 맨션과 빌라, 건설업체 등에 투자, 사업에 성공했으며 제주지역 부동산 등에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전남 농산물품질관리사 정총

"소비자에 안전 식품 제공"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농산물품질관리사가 나와야 합니다."

농촌진흥청 홍윤표 박사는 19일 농산물의 품질 관리, 상품 및 브랜드 개발, 물류 효율화, 판촉 및 바이어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역할이 갈수록 막중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사진〉 홍 박사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농산물품질관리사 광주·전남지회 정기총회에 참석, '농산물품질관리사 역할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취업이나 현장활동이 미미하긴 하나, 우수농산물 인증센터나 농산물 유통조직에서 이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윤종하 농산물품질관리사협회장, 김석민 광주·전남 지회장 등 5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외국인 매수세따라 변동성 커

철강·기계 등 '굴뚝주' 관심을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폭발적인 외국인 유동성을 바탕으로 연중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했고 단숨에 1,700선까지 육박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되던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대다수 글로벌 증시도 동반 상승폭을 확대하는 추세다.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내증시의 일등 공신은 분명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 유입이다. 지난 한 주간 무려 3조원 이상의 국내 주식을 사들인 외국인들의 매수 원인은, 글로벌 저금리 기조하에서의 캐리 트레이드(차입거래) 자금 유입이나 상대적으로 빠른 우리나라의 경기회복 속도 반영, 혹은 FTSE선진국 지수 편입에 따른 선취매 성격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글로벌 증시의 동반 강세 자체도 안전자산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도를 추가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요소다.

이번 주에도 전체적인 그림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는 급격하게 변화하기 보다는 일정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주 중반 이후에는 FOMC 및 G20 정상회담과 같은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어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만약 FTSE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전에 두고 유입된 이벤트성 자금이 있었다면 지수에 편입되는 21일 이후의 동향도 관심거리이고, 이번주 일본 증시 휴장이나 다음주 중국 증시 휴장도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에 다소의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어떻든 간에 지난주 후반 외국인들의 매수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부 업종에 집중되던 매수 방향성이 증시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된 것은, 그만큼 증시의 변동성을 낮춰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재개되며 상승 추세의 복귀가 기대되는 IT와 자동차 등 수출주들의 경우는 3분기 실적 컨센서스(시장 예상치)의 상향조정이 빠르게 진행된 반면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에 따라 향후 이익전망치가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빠른 국내 경기회복세나 중국 경제의 불안수위 완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실물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철강, 기계 등 굴뚝주 및 내수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